

〈2019 제2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심사평

2019년 제2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총 응모작은 446편(성인부 307편, 청소년부 139편)이었다. 첫 발을 내디딘 작년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인들의 투고작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들의 다채로운 시선과 경험이 이산문학 독후감에 넓이와 깊이를 더해 주어 더없이 반가웠다.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는 국내의 여타의 독후감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각별하다. 우선 해외의 한민족 동포들의 이산의 경험을 공유하고, ‘민족, 국가, 경계’에 대해 21세기적 지평에서 성찰하고 급변하는 일상의 기반을 다지자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는 단지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유목적 삶의 경계넘기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명실상부 지구촌 시대와 초연결사회가 도래하여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낯선 것’을 만나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라는 동일성이 폭력으로, 혹은 더 큰 중심 앞에서 주변부로, 또는 타인이 이웃이 아닌 적으로 변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SNS 덕분에 더 많은 소통창구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으나 술한 익명과 파편 속에서 혐오와 적대가 자라나는 것도 그러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는 이런 ‘타자성’의 경험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외국의 소수자, 국내의 주변부적 삶, 그리고 ‘우리’가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확장되고 두터워지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이번 독후감 대회가 이에 값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온 글들은 이산문학에 대한 손쉬운 정의와 편견을 뛰어넘게 해주었다. 특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생생하게 빛나는 육성과 감각은 심사위원에게도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 또한 글 한편 한편에 담긴, 알곡같은 경험담과 성찰은 대상 작품 못지않은 실감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값진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 성인부 심사평

성인 부문에서는 예심, 본심의 과정을 거쳐 대상 1편과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14편을 선정하였다. 응모작들의 수준이 높아 심사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대상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텍스트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신춘문에 평론 부문의 응모작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글도 있었다. 자신이 살아온 구체적 삶과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한민족 이산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하는 솜씨가 돋보였다.

대상 수상작인 강교리의 「덧없는 환영들을 넘어, 무지개의 세계로」는 ‘사실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음악의 형식을 빌려’ 포착한 『덧없는 환영들』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섬세하고 독창적인 독법으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한 글이다. 심사위원들 모두가 대상작으로 추천했을 정도로 빼어난 글이었다. 박상옥의 「감옥의 디아스포라」는 교도소 체험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새롭게 통찰하는 대목이 돋보이는 글이었다. 신영복, 서준식의 글을 통해 서경식을 불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으며, 여기에 자신의 구체적 체험을 포개는 솜씨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용석의 「해몽(解夢)」은 꿈과 현실, 사랑과 죽음의 긴장을 통해 ‘슬픈 기억을 횡단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면밀하게 추적한 흥미로운 글이었다. 이인범의 「그 쪽과 여기 사이」는 ‘집’과 ‘할머니’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파친코 구슬』의 의미를 생생하게 되살려낸 우수한 글이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파친코 구슬’의 법칙을 통해 ‘광원을 잡을 수 없는’ ‘집(할머니)’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포착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작품 이외에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작품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글들이 많았다. 수상작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점이 아쉬웠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제3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는 더욱 성황리에 개최되어 보다 많은 응모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이번 독후감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청소년부 심사평

청소년 부문에서는 논의를 거쳐 대상 1편과 우수상 3편, 장려상 20편을 뽑았다. 수상작들은 대체로 ‘원작에 대한 이해도’ ‘감상 표현력’라는 심사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심사위원들은 이산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지어 성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았다.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가 단지 글쓰기 솜씨의 향연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타자성의 경험’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하여, 독후감의 모범적인 글쓰기와 이산문학의 익숙한 이해방식을 되받아쓰기 한 글보다는 소박하더라도 청소년의 감각과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 글들을 우선적으로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김정의 「이 세상이 모든 지니가 평안하기를」은 그러한 기대에 충분히 값하는 글이다. 대상작인 『지니의 퍼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작가의 메시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꼭꼭 눌러쓴 글이다. 읽는 이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우게 하는 씩씩하고 활달한 문체도 매력적이다. 『순교자』에 대한 이지은의 독후감 「나에 신은 희망이자 방관자이다」는 성실한 작품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을 희망, 또는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의미매김하는 창의적인 독법이 돋보이는 글이다. 동현진의 글 또한 지니가 처한 디아스포라의 고뇌를 평범한 한국 청소년의 맥락에서 자기 문제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글이다. ‘누군가의 정의가 아니라 나의 정의’라는 화두를 놓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책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거대한 퍼즐 속에서 나의 가치가 오롯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깊은 울림을 준다. 권유정의 「국적이란 무엇인가」는 가네시로 가즈키의 『GO』를 통해 민족과 국적 등의 이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일교포 뿐아니라 우리사회의 차별적 현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글이다. 개개인에서 ‘국적과 민족’을 지우고 보편적인 인간으로 정립하고 있는, 이러한 독법은 흔할 것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요만큼의 청소년의 진정어린 다짐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것이다. 이밖에도 어른의 익숙한 독법을 해체하거나, 혹은 교훈을 소박하게 자신의 것으로 풀어내고 있는 많은 글들이 공감과 즐거움을 주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독서를 통해 확장된 이들의 사유의 지평이 많은 이들에게 널리 확산되기를, 그리하여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가 21세기 노마드 시대의 건강한 이념의 전도사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심사위원 강진호, 고인환, 정은귀, 정은경